

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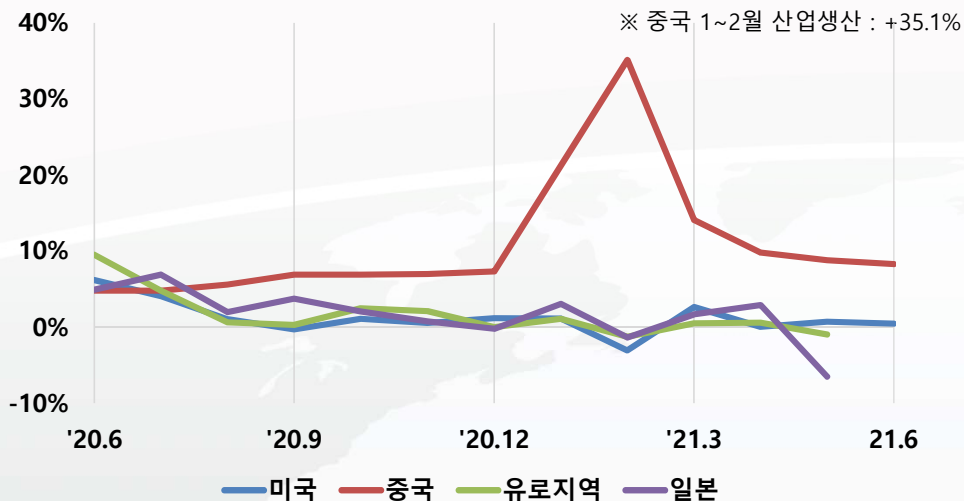
2021.7

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

■ 주요국 경제동향 : 회복세가 다소 둔화된 가운데 델타변이 확산으로 불확실성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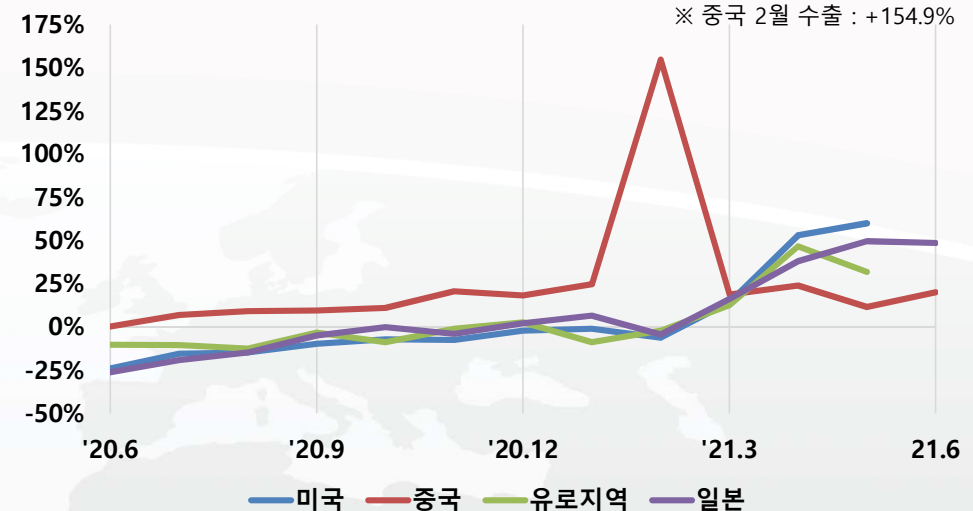
- (미국) 건조한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있으나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경기 불확실성 증대
- 6월 산업생산(전월 대비 +0.4%)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제조업 PMI가 전월 대비 0.6p 하락하는 등 기업의 경기전망 다소 악화
- (중국) 대내외 수요회복으로 양호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기저효과 축소로 성장률은 하락
- 6월 산업생산(전년동월 대비 +8.3%), 수출(전년동월 대비 +20.1%), 소매판매(전년동월 대비 +12.1%) 모두 고성장세 지속
- (유로존) 백신접종 확대 및 이동제한조치 완화 등 긍정적 요인과 델타변이 확산 등 부정적 요인 상충
- 5월 소매판매(전월 대비 +4.6%), 수출(전년동월 대비 +31.9%)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, 산업생산(전월 대비 Δ 1.0%)은 위축
- (일본) 방역조치 장기화(8월 22일까지 긴급사태 재선언) 등으로 내수 부진, 수출 개선 지속
- 5월 소매판매(전월 대비 Δ 0.3%) 2개월 연속 감소, 산업생산(Δ 6.5%) 큰 폭 위축, 5월 수출(전년동월 대비 +48.6%)은 높은 증가율 유지

전산업생산지수



주 : 전월 대비, 계절조정 기준. 중국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Bloomberg

수출 추이



주 : 전년동월 대비, 원계열 기준. 중국(USD) 제외 각국 통화 기준
자료 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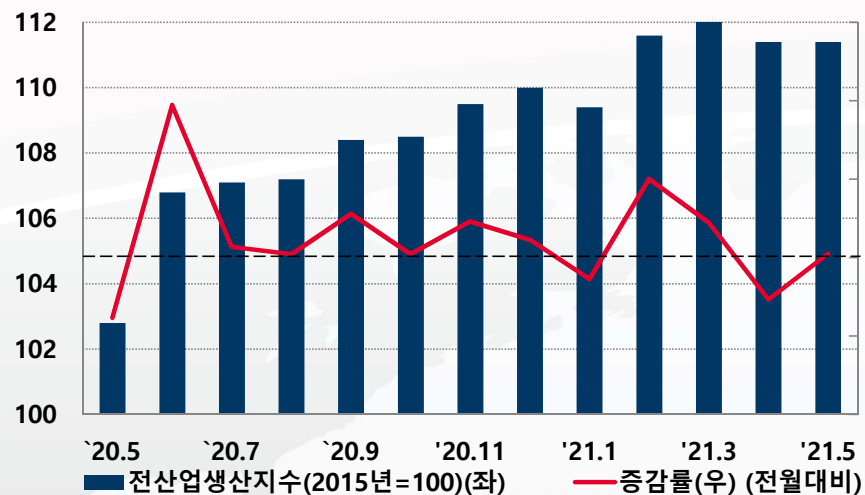
■ 산업 활동 : 제조업 및 서비스업 회복 둔화세

- (생산) 5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, 서비스업, 건설 등이 모두 감소했으나 공공행정 부문 확대로 전월 대비 0.1% 증가
 - (광공업 : $\Delta 1.7\%$) : 반도체(+5.3%) 등에서 생산이 증가했으나, 자동차($\Delta 6.6\%$), 기계장비($\Delta 5.6\%$) 등에서 크게 감소
 - (서비스업 : $\Delta 0.2\%$) :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효과 등으로 숙박·음식점(2.5%) 증가, 도소매($\Delta 1.3\%$), 금융보험업($\Delta 1.0\%$) 감소
- (경기) 5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(104.1p)는 12개월 연속 상승하며 '10.1월 이후 최장기간 증가 (기준치 100)

■ 수출 동향 : 반도체, 석유화학, 자동차 등이 선전하며 6월 및 상반기 역대 최고치 경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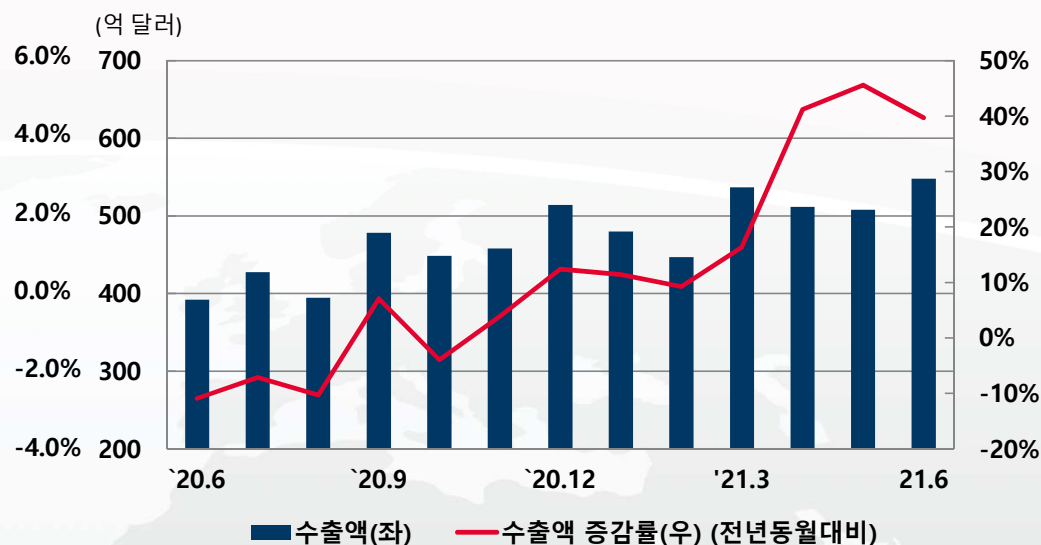
- 6월 총수출은 548.0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+39.7%)를 기록하며, 3개월 연속 40% 내외 증가율 유지
 - 美(51.9%) · 中(14.3%) · EU(65.3%) 등 주요국 수출 호조세 속 중남미(106.4%), 아세안(39.6%) 등 신시장도 선전
 - 반도체는 두 달 연속 100억 달러 돌파, 자동차도 50% 증가하며 6개월 연속 두 자리 증가율 기록

전산업생산지수(계절 조정)



자료 : 통계청

수출 추이

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(통관기준)

국내외 금융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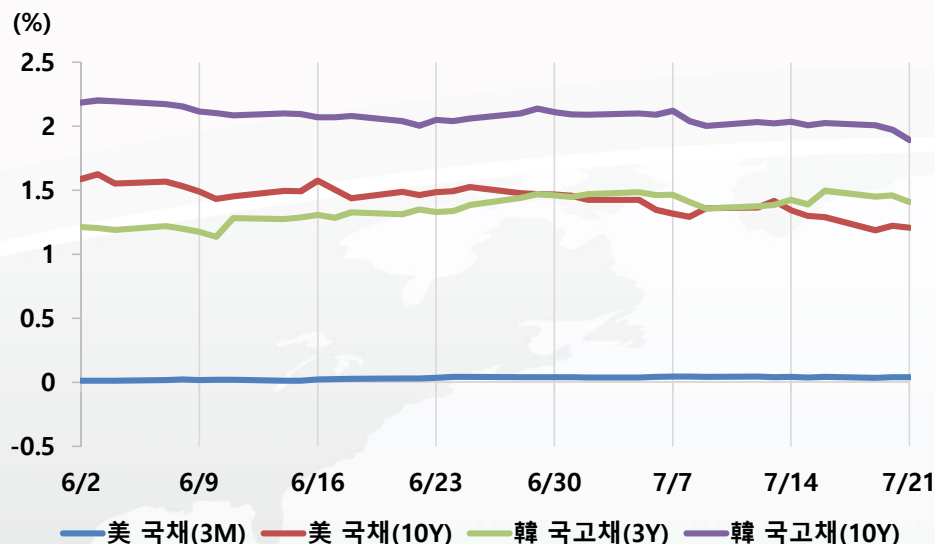
■ 금리 : 7월중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낙관적 경기회복 기대가 약화되며 소폭 하락세

- (미국) 미국채 금리(10년물)는 FOMC 회의(6.16) 이후 다소 매파적인 발언 등으로 1.5%대로 다시 상승했으나, 델타변이 확산으로 경기회복 기대가 약화되며 7월중 하락세로 반전
- (한국) 국고채 금리는 소비자 물가 및 자산가격의 급등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은 총재의 금리인상 발언 등으로 3년물은 상승했으나,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 및 미장기금리 하락으로 10년물은 하락

■ 환율 : 전반적인 미 달러화 강세 기조 속 각국의 경기회복 전망 변화에 따라 등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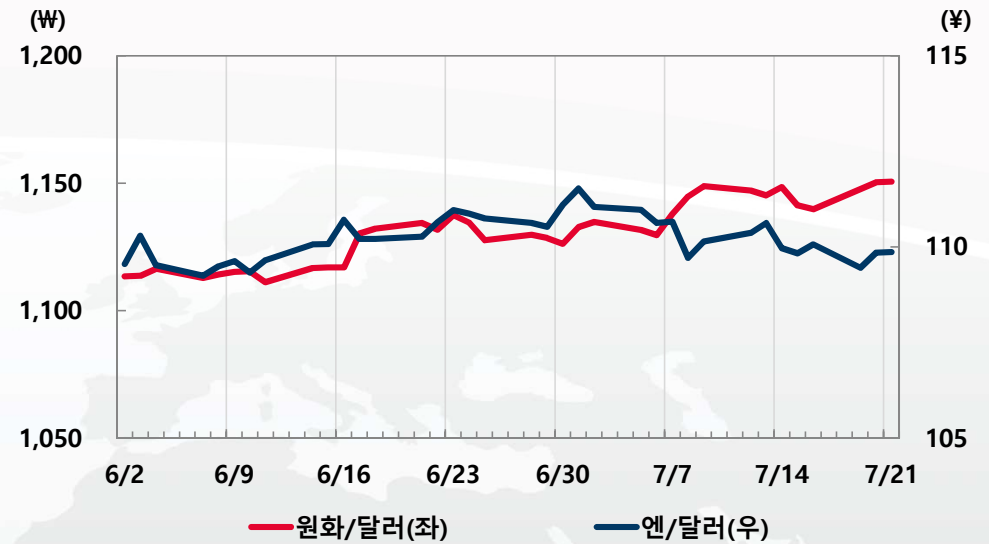
- (원/달러 환율) 경상수지 흑자 기조에도 불구하고, 미달러화 강세 및 델타변이 확산에 따른 국내경제 악화 우려로 1,150원/달러 수준까지 상승
- (엔/달러 환율) 미·일 금리차 확대, 일본의 경기회복 둔화 및 등으로 상승한 이후 미금리 하락 영향으로 하락세로 반전

韓·美 채권 금리 추이



자료 : Bloomberg 및 한국은행

달러 환율(對원화, 對엔화)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

■ 국제유가 배럴당 70달러대로 상승, 천연가스 가격도 상승세 지속하여 2018년말 이후 최고치 기록

- (유가)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이동제한 완화 등 운송용 석유수요 회복 기대감 등으로 유가 상승세 지속, 6월 들어 배럴당 70달러대를 돌파하고 7월초까지 70달러 중반대 기록 이후 7월 중순 70달러선 붕괴
 - 7월 초 미국 원유 및 휘발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며 배럴당 70달러 중반대(7.6일, 두바이유 \$75.88/bbl)로 상승,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, OPEC+ 감산 완화 합의(7.18일)로 70달러선 붕괴
- (천연가스 가격) 냉방용 발전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세 지속, 7월 중순 mmBtu당 3달러 후반대 기록
 - 6월 말 이후 미국 전역의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냉방용 가스발전 수요 급증과 유가반등 등으로 가스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어 7월 중순 mmBtu당 3달러 후반대를 기록(7.13일, NYMEX \$3.696/bbl), 2018년 12월 이후 최고치 기록

국제유가 추이

(\$/bbl)



미국 천연가스 가격 추이

(\$/mmBtu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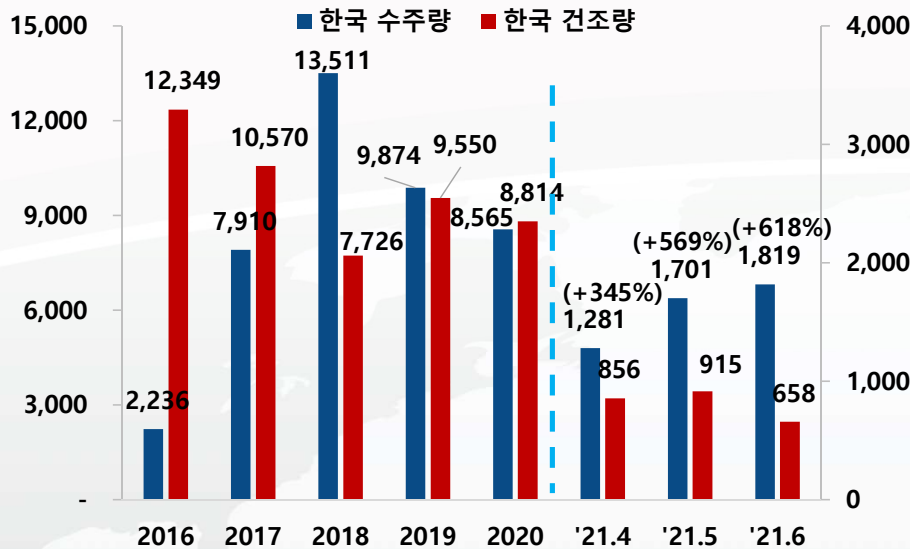
자료 : Koreapds(유가는 주간 가격, 천연가스 가격은 NYMEX 익월물 일일가격)

■ 6월 수주는 해운시장 개선으로 다양한 선종에서 건조세 유지

- 6월 시황은 세계 발주량, 한국 수주량 모두 컨테이너를 중심으로 크게 호전됨
 - 6월 세계발주량은 전년동월 대비 219.3% 증가한 415만CGT, 6월 누적치는 전년동기 대비 191.5% 증가한 2,402만CGT
 - 6월 한국 수주량은 182만CGT(전년동월 대비 +617.8%), 누적치는 1,047만CGT(전년동기 대비 +677.4%)
 - 6월 수주액은 56.9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+587.6%), 누적 수주액은 267.1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+696.7%)
 - 6월에는 해양플랜트인 FPSO 1기를 포함하여 LNG선, 대형컨테이너선, LPG선, 탱커 등 다양한 선종의 선박이 고루 수주됨
- 6월 선박 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증가하는 등 생산량 다소 회복
 - 6월 수출액은 19.5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41.2%), 누적 수출액은 118.6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21.5%)

한국 조선업 수주 및 건조량 추이 (천CGT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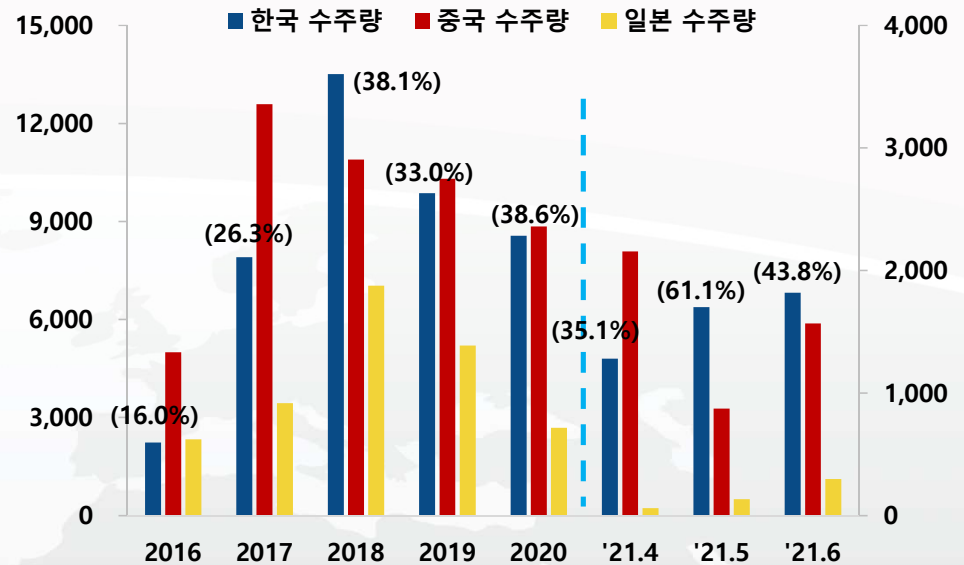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수주량 증감률

자료 : Clarkson

한·중·일 수주량 및 점유율 추이 (천CGT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당월 한국 수주량 점유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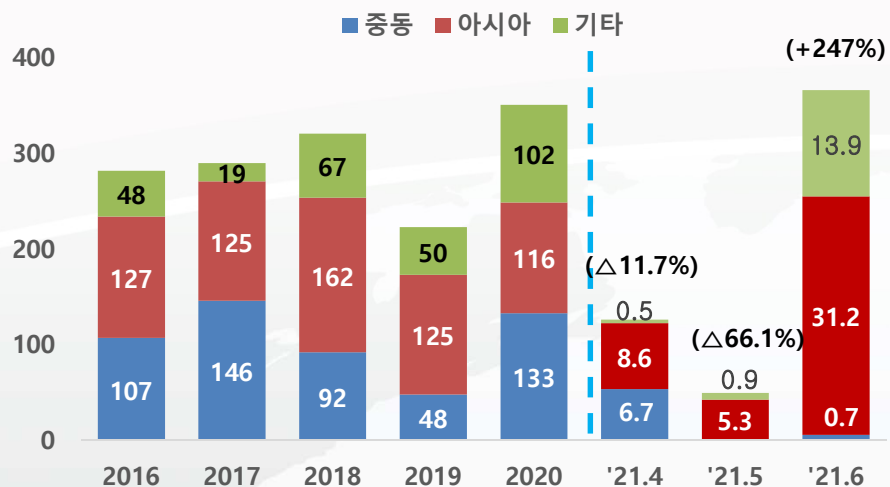
자료 : Clarkson

■ 6월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동월 대비 247% 증가한 45.8억 달러

- (지역별) 중동 수주는 77.4% 감소한 0.7억 달러, 아시아는 31.2억으로 전년동월 대비 438% 증가
 - 중동지역 수주 부진에도 불구하고, 아시아 지역 수주가 크게 증가해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액은 147.5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8.6% 감소에 그침
- (공종별) 플랜트 32.8억 달러(전년동월대비 +382%), 토목 1.5억 달러(+667%), 건축 0.2억 달러(△78%) 기록
- 삼성물산의 대만 Taoyuan 국제공항 제3터미널 토목공사(11.2억 달러), 삼성엔지니어링의 사라왁 메탄올 프로젝트(10.7억 달러) 등 아시아 지역 플랜트 및 토목 수주가 6월 증가 견인
- 유가 상승으로 하반기 중동 수주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, 2021년 해외건설 수주 300억 달러 달성은 무난할 전망

해외건설 수주액 (억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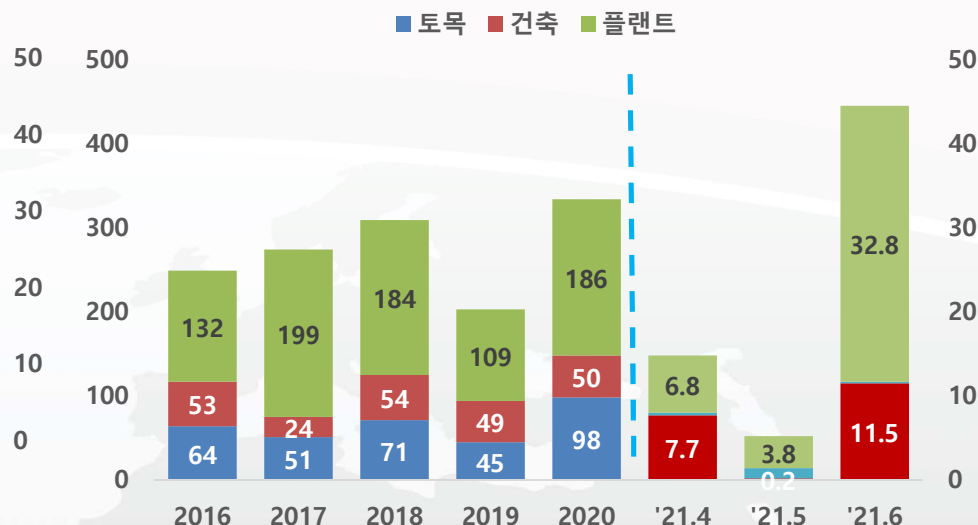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총 수주액 증감률
자료 : 해외건설협회

공종별 해외건설 수주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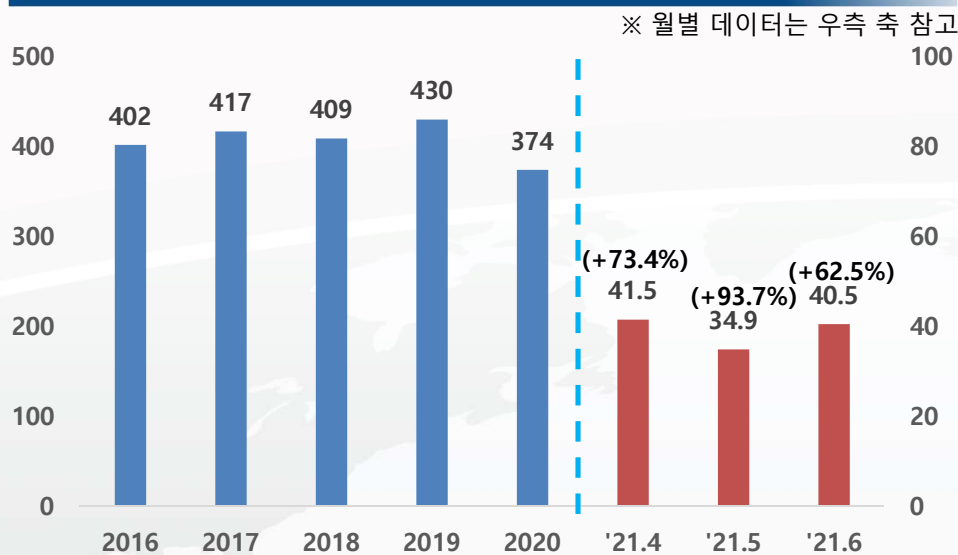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해외건설협회

■ 6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각각 40.5억 달러, 19.6억 달러 기록

-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62.5% 증가했으며, 전기자동차 수출은 5.3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8.0% 증가
 -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 등 공급망 리스크가 여전하나,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른 북미 및 유럽지역 소비심리 개선으로 자동차 수요는 여전히 양호한 상황, 여기에 SUV와 친환경차 수출 단가 강세로 수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
 - * 친환경차 수출단가(\$): ('20.4) 24,293→('21.4) 28,646(+17.9%), SUV 수출단가(\$): ('20.4) 19,197 → ('21.4) 22,141(+15.3%)
-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108.2% 증가한 19.6억 달러 기록, 전월에 이어 증가세 지속
 -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미국 및 중국향 수출이 빠르게 회복 중이며, 여기에 SUV 등 수출 전략 차종의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자동차 부품 수출 증가세도 지속

자동차 수출액 (억 달러)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
자료 : 무역협회

자동차부품 수출액 (억 달러)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
자료 : 무역협회

■ 6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출은 각각 전년동월 대비 34.3%, 29.7% 증가

-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34.3% 증가한 112.3억 달러로 12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증가

-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견조한 수요, D램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30.7% 증가한 75.4억 달러 기록

* D램 고정거래가격(달러) : ('20.5~6)3.31→(7~9)3.13 →(10~12)2.85 →('21.1~2)3.0 →(4~6)3.8 (D램익스체인지)

-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파운드리 수요 증가*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46.5% 증가한 31.3억 달러 기록

* 국내 파운드리: 퀄컴의 AP(Application Processor), 엔비디아의 GPU(Graphic Processing Unit) 등을 수주

* 시스템반도체 수출물가지수(2015=100): ('20.6)83.3 → ('21.1)76.1 → (3)78.1→ (5)83.6 → (6)83.5 (한국은행)

-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9.7% 증가한 19.5억 달러로 10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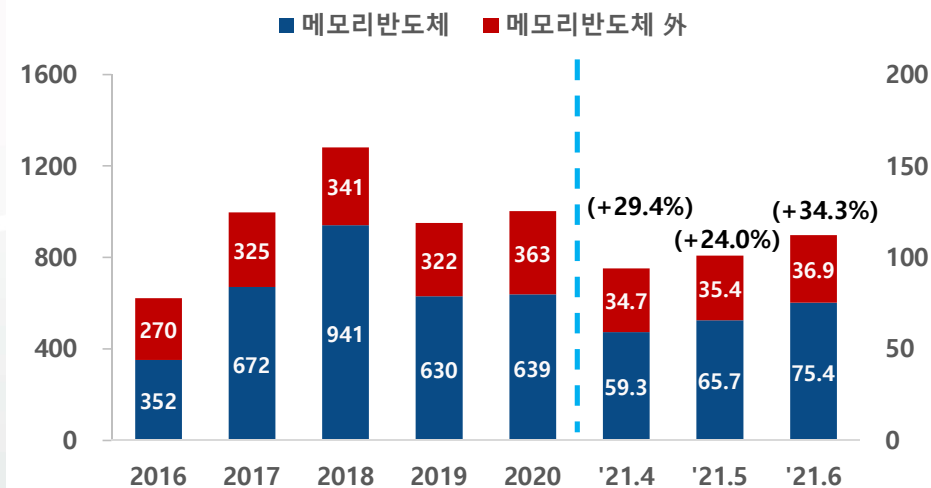
- OLED 수출은 모바일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61.2% 증가한 11.2억 달러 기록

* OLED 수출물가지수(2017.12=100): ('20.6)68.0 → ('21.1)61.7 → (3)54.6 → (5)51.2 → (6)51.1 (한국은행)

- LCD 수출은 LCD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LCD 구조조정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2.8% 감소한 4.7억 달러 기록

반도체 수출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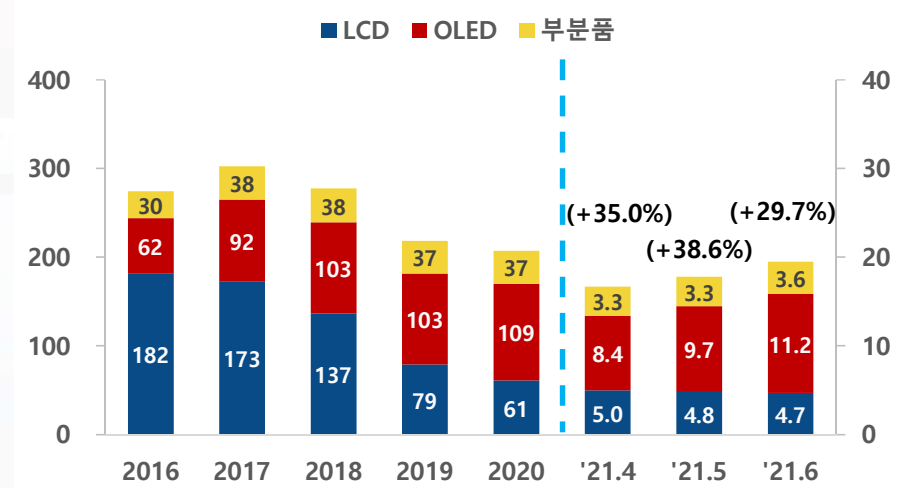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

디스플레이 수출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